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80-2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기획: 코로나19 8차 인식조사
(상황 인식, 공적 주체 신뢰도 등)

2020. 06. 03.

담당자 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기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기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오승호 부장

전화 | 02-3014-0167
e-mail | shoh@hrc.co.kr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구정태 대리

전화 | 02-3014-1040
e-mail | jtkoo@hrc.co.kr

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1 코로나19 상황 인식

국내 확산 상황 심각하다 62%, 지난 조사보다 8%포인트 상승 정부 대응 긍정평가는 80%대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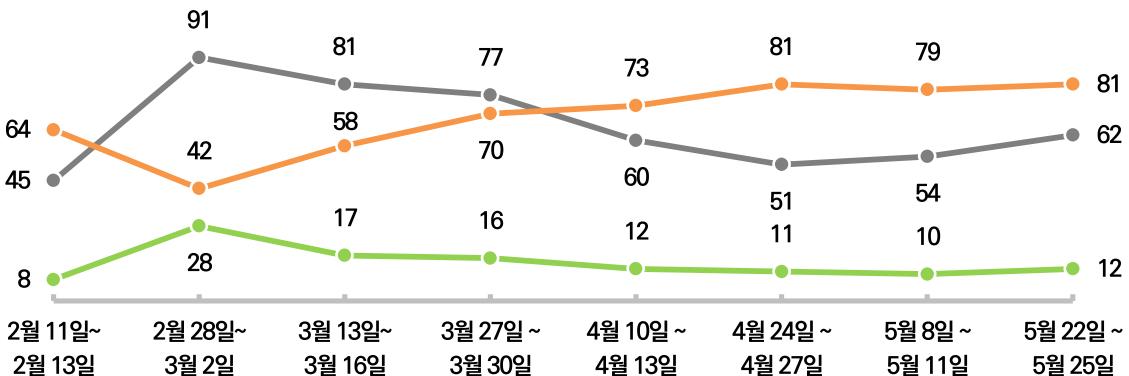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2%(매우 심각하다 10%, 심각한 편이다 51%)로 5월 8일~11일 조사 대비 8%포인트 증가하였다. 대구경북지역 집단감염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한 우려가 5월 이후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.

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9%(매우 잘하고 있다 37%, 대체로 잘하고 있다 44%)로, 2주 전 대비 2%포인트 상승해, 다시 80%대를 회복하였다. ‘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’는 응답은 2주 전 대비 2%포인트 상승한 12%로 나타났다(감염 가능성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’를 위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함).

국내 확산 상황 심각하다 62%, 지난 조사보다 8%포인트 상승 정부 대응 긍정평가는 81%

(단위 : %)

—●— 국내확산 상황이 심각하다 ●—● '내가'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—●— 대통령과 정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



질문: · (국내 확산)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(감염 가능성) 귀하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- (정부 대응 평가)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'매우 긍정(매우 그렇다) + 긍정(그런 편이다)' 만 제시

감염 가능성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’를 위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함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1차: 2020.02.11~02.13, 2차: 2020.02.28~03.02, 3차: 2020.03.13~03.16, 4차: 2020.03.27~03.30,
5차: 2020.04.10~04.13, 6차: 2020.04.24~04.27, 7차: 2020.05.08~05.11, 8차: 2020.05.22~05.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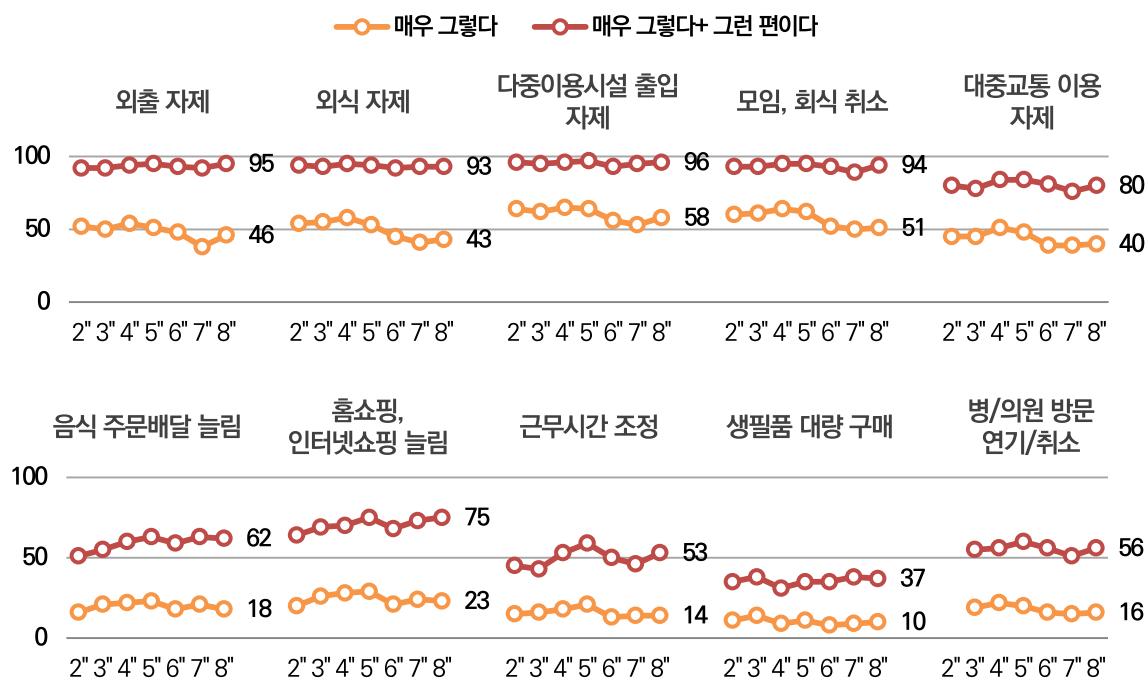
2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

사회적 거리두기 지속

코로나19 이후 외출 및 외식 자체,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체, 모임이나 회식 취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여전히 90%대로, 지난 조사와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하였다. 지난 7차 조사가 연휴 직후 진행되었고 이후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잠시 느슨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.

외출 자체, 외식 자체,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했다는 응답 소폭 상승

(단위 : %)



질문: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,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?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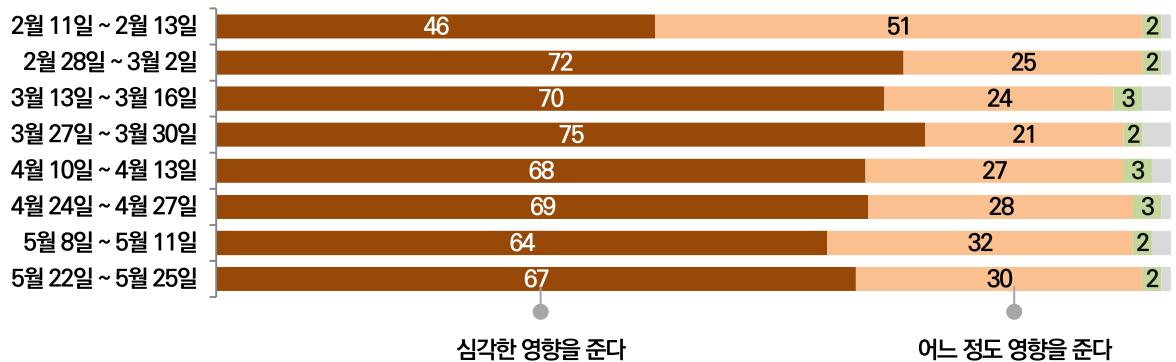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차: 2020.02.28~03.02, 3차: 2020.03.13~03.16, 4차: 2020.03.27~03.30, 5차: 2020.04.10~04.13,
6차: 2020.04.24~04.27, 7차: 2020.05.08~05.11, 8차: 2020.05.22~05.25

3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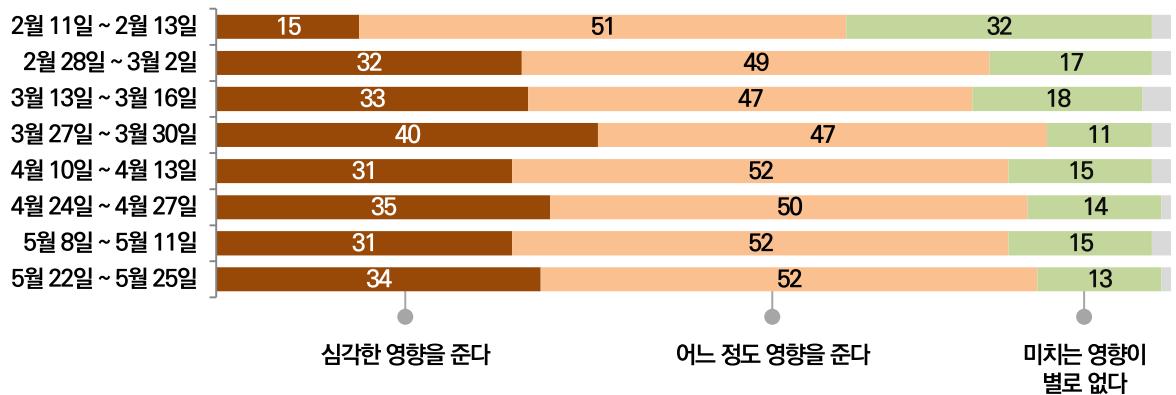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가 국가 경제,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심각

코로나19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7%, 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4%로 2주 전 조사 대비 각각 3%포인트 증가하였다.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0~70%대, 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0~40%대를 유지하고 있다.

코로나19,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67% (단위 : %)



코로나19, 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34%



질문: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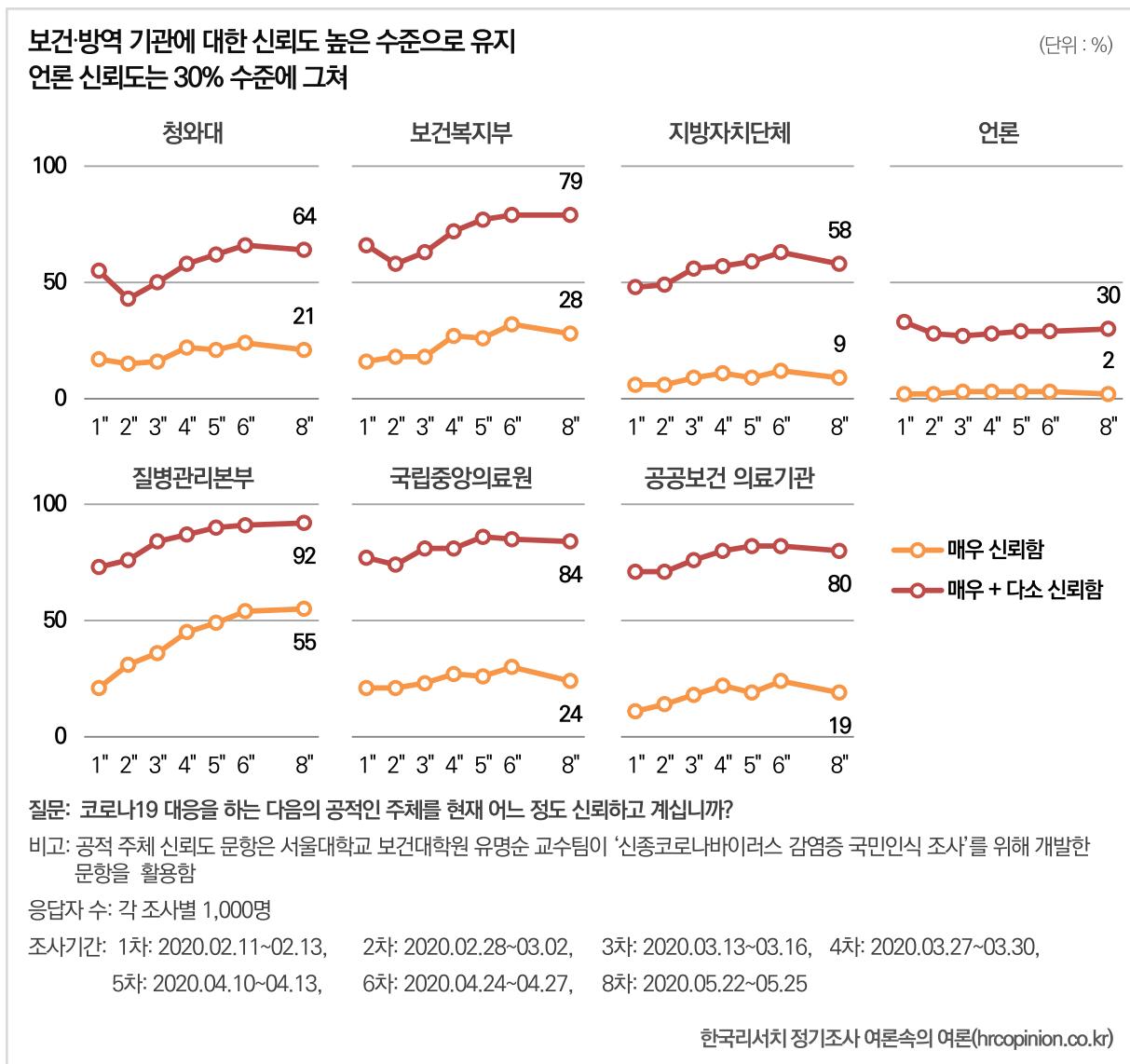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1차: 2020.02.11~02.13, 2차: 2020.02.28~03.02, 3차: 2020.03.13~03.16, 4차: 2020.03.27~03.30,
5차: 2020.04.10~04.13, 6차: 2020.04.24~04.27, 7차: 2020.05.08~05.11, 8차: 2020.05.22~05.25

4. 코로나19 관련 공적 주체 신뢰도

보건·방역 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

질병관리본부, 국립중앙의료원,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코로나19를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보건·방역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0%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를 신뢰한다는 응답 역시 79%로 높은 수준이다. 청와대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60%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30%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(공적 주체 신뢰도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'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'를 위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함).



5 등교 개학 찬반

등교 개학 찬성 38%, 2주 전 대비 6%포인트 하락 학부모, 등교수업 찬성 51%→37%

지난 5월 20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. 27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, 중학교 3학년, 초등학교 1~2학년, 유치원생이 등교수업을 시작하며, 고등학교 1학년, 중학교 2학년, 초등학교 3~4학년은 6월 3일,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~6학년은 6월 8일 등교를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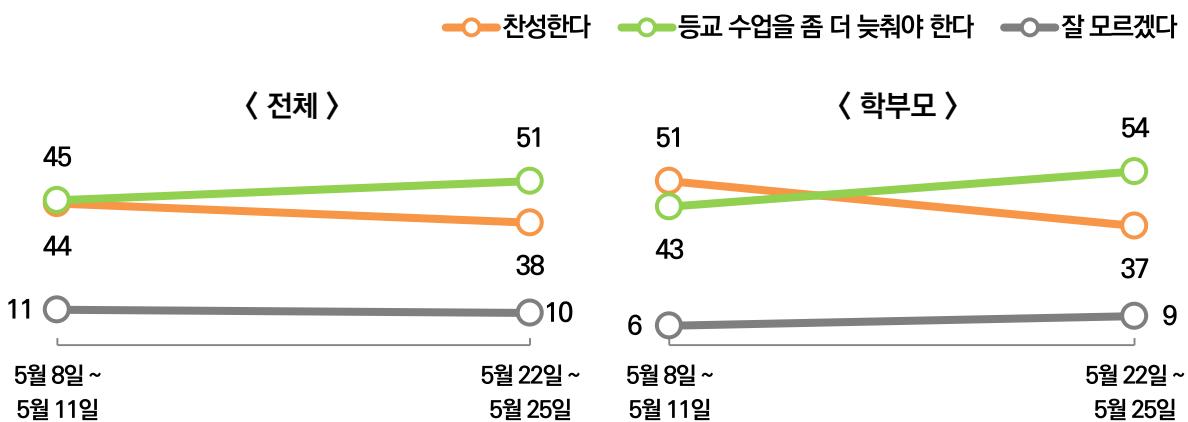
등교 개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.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, 수능 등 학사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등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,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. 한편 경기도 부천, 경북 상주 등 지역감염이 발생한 일부 지역은 예정된 등교 수업을 미루기로 결정하였다.

등교 수업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? 2주 전인 5월 8일 ~ 11일 조사에서는 등교 개학 찬성이 44%, 반대가 45%로 차이가 없었다.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38%, 늦춰야 한다 51%로 등교 개학 연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,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등교 개학의 불가피성보다 더 큰 것이다.

영유아와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여론도 반전되었다. 2주 전 조사에서 학부모의 51%가 등교에 찬성해, 반대(43%)보다 근소하게 앞섰다.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7%만이 등교 개학에 찬성했고, 54%는 반대하였다.

**등교 개학 찬성 38%, 2주 전 등교 개학 시작 직전보다 6%포인트 하락
영유아,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도 37%만이 등교 개학 찬성**

(단위 : %)



질문: 등교 수업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응답자 수: 전체: 각 조사별 1,000명, 학부모: 7차조사 253명, 8차조사 245명

조사기간: 7차조사: 2020.05.08 ~ 05.11, 8차조사: 2020.05.22 ~ 05.25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(20년 4월 기준 약 49만 명)
표집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,000명
표본오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±3.1%p
조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조사요청 6,079명, 조사참여 1,199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6.5%, 참여대비 83.4%)
조사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020년 5월 22일 ~ 25일
조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여輿론論

Hankook Research

